

야곱의 또 다른 죄

날이 밝았다. 씨름을 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이런 야곱의 눈 앞에 에서와 사백 명의 장정들이 나타났다. 도망칠 수 없는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여종들과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그 다음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서게 했다. 에서가 칼을 휘둘러도 라헬과 요셉만큼은 도망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그리고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한다. 에서를 향해 일곱 번 절을 하며 나아가는 야곱을 향해 에서가 달려온다. 아버지를 속이던 날도 이만큼 떨렸을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 창세기 33:4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셨다. 추격하는 라반에게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만나게 하셨다. 홀로 남은 야곱과 씨름도 하셨고 에서의 마음도 이미 돌려 놓으셨다. 형제의 화해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야곱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가슴 졸이는 일이었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허무할 정도로. 그러나 두 사람의 화해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형제가 화목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는 결말은 일어나지 않았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 창세기 33:12

다리를 저는 동생이 걱정되었는지 에서가 동행을 제안한다. 야곱에게 가나안은 낯선 장소가 되어버렸고 현재 시점에서 에서 만큼 가나안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에서가 거느린 사백 명의 병사들이 야곱 무리를 호위할 것이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동행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에서의 호의를 믿지 못한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에서를 설득한다. 자식들도 어리고, 짐승들도 어려서 하루만 달려도 ‘모든 떼가 죽으리니’ 하면서. 물론 거짓말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 창세기 33:14

에서를 ‘주’라고 불러가며 먼저 가시라고, 천천히 갈 테니 나중에 세일에서 만나자고 말했지만 정작 야곱이 머무르기로 결정한 곳은 세겜 성읍 근처였다. 세겜에 사는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받을 산다. 집을 짓고 가축들이 머물 우릿간도 지었다. 상당히 큰 규모였을 것이다. 야곱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 생각이다. 그러나 세겜 성읍에 사는 히위 족속과 접촉하면서 야곱은 또 다른 위험을 만나게 된다.

또 다른 위험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 창세기 34:1-2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의 젊은 지도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범인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다. 유목사회에서 피의 복수가 성립되는 사건이었다. 아들의 범죄를 수습하려 하몰이 피를

낸다. 죄를 저지른 아들도 디나를 꽤 마음에 들어하니 아예 혼인을 시켜서 복수를 무산시키려 했다. 게다가 야곱은 아들이 많으니 히위 족속 여자와 결혼을 시키면 결국 야곱이 가진 재산이 다음 세대에 이르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속셈이다. 야곱은 어디를 가나 자신 보다 한 수 위인 사람들을 만난다. 하물도 라반 만큼이나 계략이 출중하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둘 다 좋지 않다. 어느 쪽을 택하든 최악이다. 가나안의 이방족속과 자녀들을 혼인시키며 동화되거나 피의 복수를 하거나. 일단은 디나를 세겜 성읍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물의 아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짠다. 야곱의 아들들은 성읍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것을 혼인 성사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을 기대한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 고통이 가장 극심한 사흘 짜 되던 날,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하여 세겜 성읍 안에 있는 남자를 죽이고 다른 아들들은 시체가 가득한 성읍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했다. 이 일로 야곱은 세겜 근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은 평안했다. 밧단아람 지방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 여러 위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추격하는 라반에게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야곱에게 보이셨다. 예서의 마음을 이미 돌려 놓으셨으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하여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었다. 그러나 야곱이 나름대로 내놓는 꾀는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밧단아람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꾀를 부릴수록 야곱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한 지경으로 내몰렸다.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답게 살았어야 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때, 지난 구습을 깨끗이 버리는 것은 그동안 지녀온 우상들을 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